

“본성마저 의심” 울먹인 판사, 처자식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그 대가를……그 대가를”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 살해한 40대 가정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주심 판사는 천륜에 반하는 잔혹한 범죄라고 지적하던 중, 울먹이다 눈시울을 붉히며 간신히 선고를 마쳤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팀장인 A씨는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저 체부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돼 노동 당국 수사를 받게 되자 신변을 비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5월30일 오후 5시12분께 가족여행을 이유로 무안 모 숙박업소에 하룻밤 숙박, 다음 날인 31일 목포와 신안 등을 거쳐 진도로 이동했다.

이동 중 목포 평화광장 근처에서 차량 안에 있던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건네 복용하게 했다. 수면제는 아내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 받았다.

범행 후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는 지난 2일 선착장에서 약 3km 떨어진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천륜 반하는 범죄, 응분 철퇴” 주심 판사 선고하며 눈시울 붉혀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한 A씨는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길거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주심 박재성 부장판사는 “천륜에 반하는 범죄다. A씨와 숨진 아내는 자녀들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을 믿고 따르던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바다에 빠진 후 바닷물을 조금 마시고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자마자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고 열린 창문을 통해 차량에

서 빠져나와 40분여 만에 물로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때문에 아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자신에게 짐만 될 것이라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A씨에 대한 인간 기본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양형 요지를 빠르게 읽어내려가던 박 부장판사는 “패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그 대가를……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목이 메는 듯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천명함으로써”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울먹이다 끝내 눈물을 흘리자 배석 판사는 박 부장판사에게 휴지를 건네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러한 이유로 A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겨우 감정을 추스리며 선고를 마쳤다.

1/오권철 기자

광주서 장애인 주차스티커 부정사용 신고 급증

유튜버 영상 확산에 일반 시민 신고 크게 늘어

1~8월 과태료 373건·5억4025만원, 2년새 4배 ↑

부정사용 적발 시 200만원, 형사 처벌도 가능

유튜버 ‘탈배턴터’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차량을 고발하는 영상이 확산하자 광주에서도 이를 따라한 시민들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 역시 2년 사이 4배 가까이 늘면서 올해 들어 5억원을 넘어섰다.

2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부과 건수는 1~8월 기준 2023년 92건에서 2024년 133건으로 44.6%(41건) 증가한 데 이어 올해 373건으로 전년 대비 180.5%(240건) 급증했다.

과태료 역시 같은 기간 1억4257만원→2억7748만원→5억4025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과 2년 만에 주차표지 위반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배, 금액은 3.8배 증가한 것이다.

자치구별 과태료는 올해 서구가 138건(2억79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 98건(1억2010만원), 광산구 96건(1억5310만원), 남구 22건(3320만원), 동구 19건(2593만원) 순이다.

광주에서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부과가 크게 증가한 것은 유튜버 ‘탈배턴터’를 비롯해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차량을 고발하는 영상이 2023년 이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앞제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받도록 해 이른바 ‘금융치료’를 하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영상을 통해 주요 위

반 사례나 신고 방법 등을 알게 돼 이를 따라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북구에서는 올해 2~8월 사이 시민 1명이 주차표지 부정사용을 비롯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123건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광산구에서도 시민 2명이 각각 64건, 63건을 신고했다.

주로 장애인이 사망한 뒤에도 반납하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시민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문서 위조나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신고를 당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운전자들도 불만을 쏟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줄 몰랐다”는 등 변명과 함께 폭언을 쏟아내기도 한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유튜버 영상을 보고 장애인 주차표지 위반 사례를 찾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며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1/이승원 기자

명절 귀성·귀경길에 호남선과 전라선 철도 무임(부정) 승차 적발건수가 최근 5년 간 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 동안 명절(설·추석, 총 41일) 철도 무임(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노선별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부선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

명절 호남선·전라선 무임승차 5년간 2만건 육박

하루 469건, 1위는 경부선… 정준호 의원 “열차 증편·단속 등 시급”

51.9%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호남선 1만 3493건(20.7%, 징수액 4억5700만원), 전라선 5730건(8.8%, 1억6251만원) 순이었다.

호남선과 전라선을 합치면 1만92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470건 가까이 적발된 셈이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2800여

건, 2021년 2400여 건으로 줄었으나 이듬해부터 다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2년 3100여 건, 2023년 4000여 건, 2024년 6400여 건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설 연휴에만 코레일, SR 합쳐 2900여 건에 이른

다.

코레일 관계자는 “10월1일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은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운임의 50%만 더 내야 했지만 벌금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 승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열차권 예매가 하늘에 별따기인 명절기간에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잡은 실정”이라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차 증편과 같은 근본적 대책 마련과 더불어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전민규 기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강도 행각을 벌인 뒤 달아난 30대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인 자신의 어머니 60대 B씨를

어머니 운영 가게 찾아가 강도짓한 30대 구속영장

묶어두고 협박한 뒤 현금 30만원과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별개 중인 상태로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홀로 일하는 틈을 타 연락없이 방문, 폭행과 함께 현금을 내놓으라고 억박지르며 태이프를 이용해 결박가

지 했다.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A씨는 범행 5시간여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린다.

1/송현기 기자

광주지역 지난 4년간 교제폭력 신고 해마다 증가 추이

광주지역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 4년 동안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지역에서 집계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총 830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32건으로 파악된 광주지역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이듬해 무려 800여건이 폭증한 1982건이 집계됐다.

2023년에도 전년 대비 300여건 가까이 늘어난 2254건이 기록됐다. 2024년에는 294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1852건에 달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2021년 1271건에서 이듬해 1803건으로 급증했다가 2023

년 1750건, 2024년 175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올해는 7월31일 현재까지 1066건이 파악됐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조치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광주경찰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위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누적 427건 진행했다. 전남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남경찰청은 2021년 31건, 2022년 37건, 2023년 52건을 조치했다가 2024년 3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는 13건이 현재까지 조치 완료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는 피해자 안전조치 도중 발생한 살인 등 강력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오철수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